

0. 동아시아 역사: 왜곡(歪曲)의 시정(是正)

Summary

동아시아 역사 (東亞細亞歷史)

[1] 중국대륙을 정복한 이민족 왕조 6개 가운데 원(元,1206-1368) 제국 하나만 몽골고원으로부터 내려왔고, 나머지 5개(慕容鮮卑 前燕 337-70; 拓跋鮮卑 北魏 386-534; 契丹鮮卑 遼 907-1125; 女真族 金 1115-1234; 滿洲族 清 1616-1911)는 만주에서 왔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.

[2] 10세기 초, 요 시조 야율아보기(耶律阿保機)의 공격을 받은 북만주의 (宇文鮮卑의 후예인) 실위몽골(室韋蒙兀) 부족은 돌궐족의 본고장인 몽골초원으로 이주해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. 따라서, 그 근본을 따진다면, 징기스칸의 몽골 부족은 서만주 몽골-선비족이라고 부를 수 있고, 모든 정복왕조는 만주에서 유래한 셈이다.

[3] 만주 출신 정복왕조(征服王朝) 창건자들은 자신들 고유의 국민개병(皆兵) 병민일치(兵民一致) 부족 전통에 입각한 군사조직을 중앙집권화하는 동시에, 피정복 한족(漢族)은 한족 관료들을 임용해 "한족을 한족으로 다스린다(以漢治漢)"는 소위 2원(二元)적 군사-행정 통치조직을 개발해, 수적인 열세와 통치행정상의 취약점을 모두 극복하고 정복왕조를 수립할 수 있었다.

[4] 언젠가 수(隋)와 당(唐)을 사학계에서 탁발선비(拓跋鮮卑) 정복왕조인 북위-서위-북주의 직계로 분류하는 날이 오게 되면, 지난 2천년 간의 중국 역사란 것은 이민족에게 간헐적으로 정복 당한 역사가 아니라, 이민족의 지배가 단 두 번 한족 제국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던 역사가 되는 것이다. 후한이 220년에 멸망한 이후 청조가 멸망하는 1911년 까지, 제대로 된 한족 제국이란 몽골족에 멸망 당한 송(宋)과 만주족에 멸망 당한 명(明) 밖에 없기 때문이다. 그나마 송은 중국대륙 남쪽으로 밀려나 북중국을 차지한 요(遼)와 금(金) 조정에 칭신(稱臣)-조공(朝貢)을 하며 살았었다.

고대한일관계 (古代韓日關係)

삼국지 위서(魏書) 왜인전을 보면, 일본열도에는 3세기 중엽까지 최소한 30여 개의 소규모 읍락국가(邑落國家)들이 존재했었다. 그런데 266-413 년 기간 중에는 왜인과 관련된 기록이 중국 정사의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다. 드디어 5세기 초 (413-43), 야마도(倭/大和/日本 此云 夜麻登/耶麻騰) 왕국의 지배자가 왜국왕의 칭호를 받는다는 기록이 진서(晉書)와 송서(宋書)에 나타난다. 일본열도의 30 여 개 국읍(國邑)이 기내(畿內)의 1개로 통일된 왕국으로 바뀌어 중국 정사에 나타나게 만든 이 147년간의 공백기가 바로 야마도 왕국의 성립 시기인 것이다. 당시 한반도를 보면, 근초고왕(r.346-75)과 근구수왕

(r.375-84) 재위 기간 중, 백제의 군사력과 영토 확장은 최고조에 달했었다. 백제 사람들이 일본열도를 정복 한 것은 370-90년 기간 중이며, 야마도 왕국의 시조는 390년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. 후기 고분시대(400-700) 문화는 4세기 말경에 건너온 백제 사람들이 세운 일본열도 최초의 통일국가인 야마도 왕국이 이룩한 것이다.

새로운 분석의 틀 (Analytic Framework)

흔히 중국,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무엇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모르고 있다.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사료를 접근 해야 왜곡의 핵심을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본 연구의 목적은 (1) 만주대륙을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제국(帝國)들의 흥망성쇠를 결정 하는 핵심 지역의 하나로 그 본질적인 개념을 정립한 다음; (2) 이 새로이 정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**만주-몽골초원-중국대륙**이라는 **3극(極)**분석의 틀(Tripolar Framework of Analysis)을 만들어 내고; (3) 이 새로 설정한 인과관계 틀의 타당성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.

제1부의 1장은 동 아시아 역사 왜곡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. 2장은 한족(漢族)의 본고장이라고 간주되는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대륙, 투르코-몽골족의 본고장인 몽골초원,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하는 선비-통구스족의 "범-만주권" 등, 3개의 핵심 역사 공동체 상호간의 작용과 반작용으로부터 결과된 과거 2천년 간 동아시아 제국(empire)의 형성-파괴 현상을 요약한 다음, 만주족 왕조 정복-통치 형태의 반복적-진화적 현상을 요약한다. 3장부터 9장까지는 1-2장의 요약된 내용들을 선비-통구스 왕조들의 정복-통치 형태 진화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, 새로이 정립된 만주대륙의 개념과 새로운 동아시아 역사 인과관계 틀의 타당성을 검증 한다.

제2부를 구성하는 10-13장은 일본열도 최초의 통일국가인 야마도 왕조의 출발과 그 성격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, 그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고대 한일관계 역사 왜곡 내용을 제1부의 주제와 분리 하여 별도로 분석한다.

부록 1은 고대 요하(遼河)와 연(燕) 장성(長城)의 위치, 부록 2는 발해의 강역을 다룬다.